

북한개발소식

2024 JUN

06

통권 224호

이달의 주제

2024년 북한의 군사 행보와 우리의 기도

탈북민 수기

손이슬 자매 (제 3화)

북한뉴스

지난해 강제북송된 탈북자 200여명 중
기독교인 정치범수용소 수감돼... 외



한국 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CONTENTS 2024 JUN



이달의 주제 :

2024년 북한의 군사 행보와 우리의 기도

- 권두칼럼 **01** 2024년 북한의 군사 행보와 우리의 기도
- 칼럼_1 **10** 남성욱_ 확대되는 북한 군수경제, 쏘그라드는 민수경제: 북러의 위험한 군사 밀월(密月)
- 칼럼_2 **17** 문성묵_ 북한의 군사경제 및 무기개발 실상과 위협
- 칼럼_3 **23** 이영철_ 北 핵·미사일 고도화와 대외전략의 공세적 변화
- 탈북민 수기 **30** 손이슬 자매 (제 3화)
- 서평 **32** 우주에서 본 한반도
- 북한뉴스 **34** 지난해 강제북송된 탈북자 200여명 중 기독교인 정치범수용소 수감돼... 외
- 북한 기도 제목 **39** 북한의 군사행보 중단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외



권두칼럼

2024년 북한의 군사 행보와 우리의 기도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2024년은 한국 전쟁 74주년이 되는 해이다. 시간이 지나며 전쟁의 기억은 희미해지고 있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위협은 증대되고 있다. 특히 올해 북한은 군사 분야에서 한반도를 넘어 국제사회의 특별한 주목을 받고 있다. 러우전쟁과 중동에서의 분쟁에서 북한제 무기가 다수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는 러우전쟁 장기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될 정도로 국제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핵 군비 증강 역시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의 활발한 군사행보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할 뿐 아니라 국제 정세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우리의 특별한 관심과 기도가 더욱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2024년도 북한의 군사 행보를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북한의 꾸준한 핵무력 증강 노력

지난해 북한의 제 7차 핵실험 준비 정황이 복수의 국가와 기관에 의해 관찰되어 한반도를 긴장시킨 바 있다. 다행히 북한은 현재(24년 5월)까지 우려되었던 추가적인 핵실험을 실시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 군비 증강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 4월 22일 북한은 국가핵무기종합관리체계인 '핵방아쇠' 체계 안에서 초대형 방사포를 동원한 핵반격 가상 종합 전술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



〈올 4월 23일 북한이 실시한 핵반격 가상 종합 전술훈련 모습 (사진=조선중앙통신)〉

은 북한의 핵 전략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이벤트 중 하나였다. 한미 연합편대군종합훈련(KFT)과 연합 공중침투훈련 등에 대한 대응을 명목으로 진행한 이번 훈련은 국가 최대 핵 위기 사태 경보인 ‘화산경보’ 체계 발령 시 부대들의 핵 반격태세 이행 절차 숙달을 위한 실제 기동 훈련과 핵 반격 지휘체계 가동 연습, 핵 모의 전투부 탑재 초대형 방사포탄 사격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

다.¹ 즉 유사시 지도자의 결심에 따라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훈련이다. 북한은 단순히 핵을 개발하는 것을 넘어서 핵을 발사할 다양한 투발 수단과 그 운용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힘쓰고 있다. 이번 핵반격 가상 종합 전술훈련은 그러한 북한의 군사 분야 중점 사항을 보여준다.

북한은 23년 초에 있었던 제8기 제6차 당 전원회의에서 군사 분야의 5가지 결정과업을 제시했다. 이는 각각 1) 신형(고체) ICBM 개발, 2) 전술핵무기 대량생산, 3) 핵탄두 보유량의 기하급수적 확대, 4) 4월 기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5) 인민군의 군사기술적 위력 강화이다.² 이후 북한의 핵 군비 증강 방향을 보면 해당 과업들을 어느 정도 완수하였거나 그 성취를 위해 사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먼저 고체연료 ICBM의 경우 북한은 지난해와 올해 연속적으로 고체 연료 미사일 발사 시험을 진행해왔다. 지난해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의 발사 훈련을 진행한 북한은, 올 4월에는 고체연료 엔진 탑재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포-16나’형의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모든 미사일의 고체연료화를 달성했다고 자평하였다.³ 고체연료방식은 액체연료 방식보다 연료 주입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보관과 취급도 용이해 한국과 미국의 탐지 자산을 피해 상대적으로 은밀한 기동이 가능하다.

1 북한, 초대형 방사포로 핵 반격 훈련…한국 “핵 사용시 정권 종말”, VOA (2024.04.23.), <<https://www.voakorea.com/a/7581306.html>>
2 함형필 (2024),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평가 및 전망: 러·북 군사기술 협력이 미칠 영향”, 한국국가전략 통권 제24호 (2024.03), 110-111.
3 북한, 신형 IRBM에도 ‘고체연료’ 적용…“모든 미사일 고체연료화 달성”, 동아일보 (2024.04.03.),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0403/124294927/1>>

두 번째로는 전술핵무기의 대량 생산과 핵탄두 보유량의 확대이다. 전술핵무기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공개한 소형 핵탄두 ‘화산-31’이 주목된다. 화산-31은 기존 축구공 형태의 핵분열탄 탄두에 비해 직경이 다소 줄어든 약 50cm 내외에 그 무게도 기존에 공개했던 미라볼형, 장

구형 핵탄두에 비해 상당히 가벼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소형화, 경량화된 핵탄두는 다양한 투발수단에 탑재될 수 있다. 북한은 해당 핵탄두가 초대형 방사포, 순항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무인수중공격선(핵여뢰) 등 8종의 미사일에 탑재될 수 있다고 간접적으로 어필하기도 했다.

소형화 된 핵탄두는 투발수단의 다양화 뿐 아니라 핵탄두 생산량 및 핵무기 보유량 증가에도 영향을 준다. 핵탄두의 소형화는 같은 핵물질로 만들 수 있는 핵탄두의 수량이 증가하는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북한은 300여기 이상의 핵탄두 보유를 목표로 핵탄두 생산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현 북한의 핵탄두 보유 수량은 적개는 30여기에서 많게는 100기 이상이다. 23년 초 스톡홀름 군축연구소(SIPRI)는 23년 1월 기준 북한이 30여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50~70여기의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도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⁴ 한국국방연구원의 박용한, 이상규(2023)는 23년 1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핵탄두 수량을 80~90여발 수준으로 평가하고 2030년까지 최대 166발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⁵ 북한의 핵탄두 보유가 100기를 넘어섰다는 분석도 있다. 랜드연구소와 아산정책연구원은 북한이 최소 18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최대 3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⁶ 군 일각에선 북한의 핵시설 운용 수준을 놓고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4 작아서 어디든 없어 쓴다…北 전술핵탄두 ‘화산31형’ 첫 공개, 중앙일보 온라인 (2023.03.28.),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0671>>
5 SIPRI “북한 핵탄두 30기 보유, 최대 70기 조립 가능 추정…전술핵무기 개발 초점”, VOA (2023. 06.13.), <<https://www.voakorea.com/a/7133863.html>>
6 박용한, 이상규 (2023), 「북한의 핵탄두 수량 추계와 전망」, 『동북아안보정책분석』, 한국국방연구원, (2023년 1월 11일).
7 브루스 W. 베넷 외 (2023), 「한국에 대한 핵보장 강화 방안」, 랜드 연구소 (Rand Corporation), 16-19.



〈북한은 23년 3월 28일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 매체를 통해 소형전술 핵탄두의 실물을 공개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뒤편에는 전술 핵탄두 ‘화산-31’을 초대형방사포 등 8개 투발수단에 탑재한 그림을 의도적으로 노출시켰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중앙일보 재인용)〉

북한 내에 이미 핵무기가 220기 이상 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⁸

세 번째로는 군사정찰위성발사이다. 핵을 쏘려고 해도 목표물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판단할 수 없다면 사용이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정찰 위성은 핵의 운용에 필수적이다. 북한이 지난해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주요 과업으로 내세웠던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북한은 지난해 5월과 8월의 두 차례 위성발사는 실패했지만, 11월 3번째 시도에서는 발사에 성공했다. 해당 위성의 성능에 대해서는 조악하거나 “일 없이 돌고만 있다”⁹는 평이 있지만, 성능이 뛰어나지 않다고 해도 위성의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다. 핵 공격은 한 개인이나 특정 건물 등의 소규모 목표물이 아닌 비교적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위성이 고해상도의 카메라를 탑재하고 고품질의 사진을 전송하지 않더라도 목표물 식별이 가능한 수준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핵 공격의 목표물 확인 및 발사가 가능하다. 북한은 지난해 말 열린 당전원회의에서 2024년에도 3기의 정찰위성을 추가로 쏘아올리는 것을 과업으로 천명하기도 했다.

위 사항들을 종합해보면 북한은 23년 자신들이 제시한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충분한 양의 핵탄두를 생산하고 투발 수단을 더욱 고도화하는 가운데 핵공격을 위한 정찰위성과 지휘통제체제 구축에 이르기까지 핵 군비 증강에 힘쓰고 있다. 또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검증이나 소형 전술핵 ‘화성-31’의 실제 작동 시험을 위한 추가적인 핵실험 등 적극적인 군사행보에 나설 가능성도 여전하다.

국제 정세와 호황을 맞은 북한의 군수 산업

북한의 핵 군비 증강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재원을 북한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을까? 여러 가지 불법 활동과 해외 노동자 파견 등도 있지만 최근에 주목되는 분야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 수출이다. 현재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확인되는 북한제 무기들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러우 전쟁에서 뿐 아니라 하마스의 북한제 무기 사용 등 중동지역, 더 나아가 아프리카 지역에까지 북한산 무기의 존재가 확인되고 있다.

예로부터 북한은 군수/군사경제를 민수경제보다 우선시해왔다. 북한에서 군수경제는 제2경제위원회의 관할에 있기에 “제2경제”로 불리기도 한다. 제2경제위원회가 관장하는 북한의 군수공장은 수백 개에 이르며 해당 공장에 종사하는 인원만도 수십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공장들은 북한의 군사비를 통해 운영되는데 북한은 자국의 군사비를 공개하지 않고 대략 전체 예산의 몇 %라는 식의 비율만 공개한다. 예를 들어 북한은 14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2019년 군사비가 전체 예산의 15.8%를 차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비는 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규모보다 훨씬 큰 것으로 확실시된다. 과거부터 북한은 자신들의 군사비를 축소해서 발표해왔다. 일례로 1960년도 북한이 공표한 군사비는 국가 예산의 3.1%에 불과했지만, 70년 제 6차 5개년 경제계획 보고에서는 60년대 19%, 67~71년에는 31.1%가 방위력 강화에 사용되었다고 언급하여 북한 스스로가 군사비 은폐 사실을 의도치 않게 드러낸 경우도 있었다.¹⁰ 그러다 보니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가 전체 예산의 최소 30% 이상을 군사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¹¹

그 동안 북한의 비대한 군사 경제는 북한 민생 경제 악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왔다. 군수산업 우선주의 노선에 따라 군수산업에 우선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나머지를 인민 경제에 배분하다 보니 인민 경제의 만성적인 부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북한에는 군사경제로의 과도한 자원 집중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 군사 경제는 지도자의 유일한 지도를 받게 되어있어 유관 기관들의 수평적 협의가 막혀 있기 때문이다.¹²

그런데 최근 북한의 군수 경제는 때 아닌 호황을 맞고 있다. 바로 세계 각 지로의 무기 수출 덕분이다. 세계 분쟁지역 곳곳에서 북한의 무기가 속속들이 발견되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 거래 정황이 여러 방면으로 포착된 데 이어 하마스가 북한의 대전차 로켓, ‘F-7’을 사용하는 정황도 확인되었다.¹³ 북한이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무기는 주로 재래식 무기이지만, 그 중에는 최근 개발된 단거리 미사일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러우 전

8 “北, 한국 겨냥한 핵무기 최소 180기… 2030년 300기 보유”, 동아일보 (2023.10.31.),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1031/121942909/1>>

9 신원식 “북한 정찰위성, ‘일없이’ 돌고만 있어”, 한겨레 (2024.02.27.),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130044.html>>

10 조남훈(2016), “북한 군사경제의 현황”, KDI 북한경제리뷰 2016년 12월호, 21.

11 오경섭(2020), “북한 군사경제 비대화의 구조와 실태”, 전략연구 통권 제 80호 (2020. 03.), 72.

12 오경섭(2020), 위의 글, 90-94.

13 국정원 “북한, 하마스에 무기공급”...‘부품’ 사진 공개, 연합뉴스TV (2024.01.08.), <<https://m.yonhapnews.co.kr/news/MYH20240108015700641>>

쟁에서는 최대 700km까지 비행할 수 있는 북한의 '화성-11호'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발견되기도 했다.¹⁴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북한의 군수 공장들은 무기 생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올해 2월 기자회견담회에서 “북러간 무기 거래와 관련하여 러시아로 제공되는 무기공장들이 풀가동되고 있다”고 전했다.¹⁵ 러우전쟁과 중동의 분쟁상황 속에서 북한의 군수산업은 특수를 맞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과거부터 불법 무기 거래 시장의 주요 판매자 역할을 해왔다. 냉전이 해체된 이후 국제 무기시장에는 구 소련제 무기들이 많아졌는데, 이 상황에서 북한은 구 소련제 무기를 개량하거나 보수해서 시장에 내놓았다. 냉전 이후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로 무기 공급자들이 대부분 사라진 상황인데다가, 러시아와 중국이 새로운 무기체계를 도입하면서 기존 동맹국들은 보유하고 있던 구 소련제 무기를 유지 보수 하는 일이 어렵게 되었다. 관련 분야에 독보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었던 북한은 그 틈새시장을 잘 공략하였다. 북한제 무기는 기술적으로 뛰어난 편이고 가격 경쟁력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북한은 무기 거래를 상대편 국가들과의 정치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외교적 도구로도 활용하고 있다.¹⁶ 최근 러우 전쟁과 중동에서 북한제 무기를 활용하는 모습이 전 세계로 노출되면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 그 외 내전 지역 등 여러 국가들에게 북한과의 무기 거래는 더욱 매력적인 선택지로 다가올 전망이다.

이렇게 무기 거래를 통해 얻어진 자원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체제 유지 비용으로 활용된다. 그 동안 북한은 대북 제재로 인해 외화 수입원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다. 그렇지만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가 트이면서 고립을 피하고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제2경제위원회의 예산은 무기 수출 70%, 내각 20%, 김정은 혁명자금 10% 정도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⁷ 무기 수출의 활성화는 자연스럽게 북한의 군사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핵군비 증강을 위한 자원 확충에 기여할 것이다.

대북 제재에 따르면 이러한 무기 거래 활동은 당연히 불법이다. 그렇지만

북한의 이러한 불법 무기거래를 막는 일은 쉽지 않다.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만큼 유엔 시스템 하에서 이를 제재하기란 매우 어렵다. 일례로 지난 3월 20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는 북러간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무기거래 의혹을 상세히 기술한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공개했지만, 러시아의 의혹 부인으로 제재 위반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¹⁸ 게다가 보고서 발간 후 열흘이 채 되지 않아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어 그 임기가 4월 말을 끝으로 종료되고 말았다. 아무래도 러시아가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북한으로부터 대량으로 들여오면서 ‘눈엣가시’인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 해체를 의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다.¹⁹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를 향해 올해 1월 2일 러시아가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잔해에서 북한제 무기로 추정할 수 있는 부품들이 발견되었다. 미사일 잔해에는 한글 ‘天’, 그리고 북한의 주체 112년(2023년) 또는 ‘2월 11일 공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112’표기가 선했다. 영국 무기감시단체 분쟁군비연구소(CAR)는 해당 미사일 잔해 분석 결과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KN-23 및 KN-24와 유사하다고 밝혔다.〉

북한의 군사 행보에 대한 우려와 우리의 기도

북한의 무기 수출은 점차 확대되고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러시아 외에도 수단, 부르키나파소, 미얀마 군정 등이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한 것으로 지목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²⁰ 특별히 북한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국가 가운데 주목되는 곳은 바로 이란이다. 올 4월 말 북한은 5년 만에 이란에 대외경제성 대표단을 파견하였는데, 이번 파견이 양국 간의 기술이전 및 무기 수출 등 군사 협력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두 국가는 공교롭게도 핵과 미사일 기술 개발로 인해 제재를 받는 입장이면서, 동시에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지지

14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발견되는 북한 무기...우려 커지는 이유는?, BBC코리아 (2024.05.07.),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pegpdx0vlo>>

15 신원식 “북한, 러시아 수출용 군수공장 풀가동...포탄 등 수백만 발 넘겨”, KBS (2024.02.27.),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00132>>

16 이수석 (2023), “북한의 대외 무기거래 실태와 최근 러북 군사무기 거래 파급효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프 495호 (2023.12.15.).

17 오경섭(2020), 앞의 글, 84.

18 쌓이는 북러무기거래 의심사례...러 발행에 제재위반 결론 '아직', 연합뉴스 (2024.03.21.), <<https://www.yna.co.kr/view/AKR20240321001600072>>

19 “CCTV 부숴버린 썸” 유엔 대북제재 판 깨졌다...15년 만에 감시기관 해체, 매일경제 (2024.03.30.), <<https://www.mk.co.kr/news/world/10978158>>

20 증거는 넘치는데...北 불법무기수출 결론 또 못내린 유엔, 연합뉴스 (2023.10.28.), <<https://www.yna.co.kr/view/AKR20231023001100072>>

하고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하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을 공급하는 만큼 이란 역시 러시아에 지대지 탄도미사일과 무인공격기(드론)를 공급하고 있다. 또한 북한과 이란은 이전에도 미사일 기술 협력 등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양국이 친러 고리로 미사일, 무인기 기술 협력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²¹


북한의 군수산업은 무기 수출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핵 군비 증강에 투자하는 모종의 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 러우전쟁의 장기화와 중동지역의 분쟁 확대는 북한에게 무기 수출을 위한 기회의 장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미 상당 수준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핵 군비 증강은 러시아 등의 도움이 없더라도 가능하겠지만, 그 기간과 속도에 있어서는 분명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분석한다.²² 러시아의 기술지원이나 무기 수출을 통한 충분한 자원 확보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앞당기고 북한의 핵전력의 양과 질 모두를 강화하는데 촉매 역할을 할 것이다.

북한의 핵 군비 증강의 주요 표적은 미국도 해당되겠지만 분명 남한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올해 초 있었던 대남노선변화와 통일 폐기 정책은 분명 남한을 목표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위협의 의미가 담겨 있다. 호황을 맞은 북한의 군수산업과 핵 군비 증강은 결국 한반도 군비 경쟁 심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북한의 지속된 핵 군비 증강과 군수 경제 발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기도해야 한다. 북한의 핵 군비 증강이 중단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북한 당국이 군사력 증강에 목매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민생을 위해서 기도하자. 최근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공급받은 식량의 양은 상당하지만, 군대와 건설 사업에 주로 투입되고 있어 민생 개선의 효과가 미미하며 주민들은 오히려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또한 군사경제의 호황은 결국 더 많은 핵무기 생산과 그에 따른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귀결되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도록 기도하자.

특별히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를 바라보며 기도

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북러 관계 밀착을 바라보며 가졌던 여러 우려점들이 현실화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도의 지경이 더욱 넓어져야 함을 깨닫게 된다. 북한의 핵 군비 증강 중단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또한 러우전쟁의 종식과 중동지역의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 가장 먼저는 전쟁으로 인해 무고하게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겠지만, 또한 북한의 핵무기 재원이 바로 해당 전쟁과 분쟁들로부터 조달되고 있으며, 전쟁 수행을 위한 무기 공급원으로서 북한을 필요로 하는 러시아가 북한을 비호하는 가운데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는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군사 행보를 제약하기 위해 오랫동안 강력한 대북 제재를 시행하고 북한의 변화를 도모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사 행보를 멈추게 하지 못했다. 최근에는 북한의 행보를 제한하고자 고안된 수단과 정책들도 한계에 부딪친 모양새이다. 북한의 핵개발 중단과 국가 방향성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인간이 짜낼 수 있는 지혜와 방법, 제도를 넘어선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하심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든다. 답답한 정세 속에서 인간의 지혜가 무력한 그 지점이 바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때일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북한을 변화시키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21 북, 이란에 대표단 파견... '친러' 고리로 미사일·무인기 협력하나(종합), 연합뉴스 (2024.04.24.), <<https://www.yna.co.kr/view/AKR20240424009952504>>

22 함형필 (2024), 앞의 글, 121-122.

확대되는 북한 군수경제, 쏘그라드는 민수경제: 북러의 위험한 군사 밀월(蜜月)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일본의 북한 전문가인 에야 오사무(恵谷治) (1946~2018) 씨는 1998년 도쿄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북한경제를 4중(重)경제라며 북한 정권의 돈줄을 분석했다. 북한경제는 내각의 제1경제, 군수경제인 제2경제, 김정은의 궁정(宮庭)경제인 제3경제, 마지막으로 장마당 시장경제 등 4바퀴로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김정일의 북한, 내일은 있는가, 1998).

이 중 궁정경제와 군수경제가 북한 정권을 지탱하는 핵심축이다. 수령의 비자금 조달을 위한 궁정경제(court economy)는 노동당 39호실이 담당한다. 1970년 중반에 조직된 39호실은 김일성, 김정일 등 김씨 일가의 외화벌이를 총괄한다. 20여 곳의 해외지부와 국영기관을 운영한다. 과거에는 궁정경제가 4중경제 중에서 가장 비중이 컸으나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제2경제가 빠르게 증가하여 30%를 상회하며 제2경제위원회가 맡고 있다. 반대로 내각과 장마당의 민수(民需)경제는 점점 쏘그라들

어 40% 미만이다. 인민들이 식량이 부족하여 아사자가 발생하는 등 의식주 부족에 허덕이는 이유다.

일찍이 일본의 북한 전문가들이 북한의 무기 개발과 거래 등 국가기밀 사항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평양이 일본 재일조선인 총연합회(조총련)을 통해 신무기에 들어가는 각종 센서, 회로 등 전자부품을 조달했기 때문이다. 필자도 세미나 이후 오사무씨와 소통하며 일본측 자료를 확보하는데 관심을 쏟았다. 북한은 1980년대 들어서 제2경제위원회 산하에 항공 우주산업을 총괄하는 8총국을 신설했다. ICBM 등 각종 미사일 개발을 전담하기 위해서다.

제2경제위원회는 산하 용악산(龍岳山), 부흥(復興), 창광(蒼光), 연합(連合) 등의 무역회사를 통해 홍콩 은행에 구좌를 개설하고 돈줄의 거래 통로를 마련했다. 용악산과 부흥무역은 러시아와, 창광무역은 중동을 주요무대로 활동하였다. 연합무역은 미사일 부품과 기술의 수입을

담당하였다. 특히 잠수함과 전차 등 무기제조에 필요한 집적회로(IC) 기판(基板)과 미사일 유도 시스템에 사용되는 스펙트럼 분석기를 일본에서 조달하였다. 일부 제품은 수화물로 위장하여 중국 등 제3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운반하였다. 북한기업과 거래했던 조총련계 회사는 도쿄, 오사카, 니가타 등지에서 한때 약 30개소에 달했었다.

이후 국방공업의 ‘컴퓨터 자동화’ 기술을 토대로 김정은 집권 이후 유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등을 비롯한 전략적인 탄도미사일들을 개발하였다. 조총련을 통한 신무기 부품 조달은 2006년 1차 북핵 실험이후 발효된 11건의 유엔 대북제재로 한계에 도달했다. 연료 체계, 엔진 및 각종 전자부품 등 신무기 부품 조달 루트는 미국의 감시가 미흡한 중국, 러시아, 파키스탄 및 이란 등으로 다양화 되었다.

평양시 강동군에 위치한 ‘제2경제위원회’는 우리의 기재부는 물론 국방부, 방위사업청 및 전체 방산업체 등이 결합된 무소불위의 부서다. 북한 군수산업의 핵심인 무기와 장비의 연구개발 및 생산을 위한 운영체계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가 지휘한다. 군수공업부의 지휘를 받아서 제2경제위원회가 무기와 장비의 기획, 연구개발, 자금조달, 그리고 장비의 생산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제2경제위원회가 기획한 무기와 장비의 연구개발은 제2자연과학원이 맡으며 연구개발이 완료된 무기와 장비의 생산은 각 군수공장이 담당한다. 내각은 군수용 전력과 자재 공급을 제공하며 제2경제위원회는 계획총국, 기술총국, 건설총국, 생산총국 등 분야별 총국을 두고 모든 무기와



〈금년 5월 11~12일 제2경제위원회 산하 주요 국방공업기업소를 현지지도하는 김정은 위원장 (사진=노동신문)〉

장비의 개발, 생산, 분배, 대외무역 등을 수행한다. 산하에 160개의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핵심부품 공장은 외부의 공격에 대비하여 자강도 강계 등 북·중 국경지대 지하에 건설하였으며 물자 조달에서 최우선 순위다. 무기 수출을 통해 획득한 외화로 외국 신무기를 사들여 철저하게 분석도 한다. 지난해 북한은 10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부당한 무기 판매를 통해 얻은 이익을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재투자하고 있다. 지난해 5월과 8월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두 차례 실패하였음에도 오는 11월 재발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2경제위원회의 금고가 있기 때문이다. 2000년 김정일은 위성발사 두세 번 하면 9억 달러가 든다고 했으니 6개월 동안 최소 1조 2천억원 이상을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쏟아 붓고 있는 셈이다.

북한 군사건설국의 경비소대장을 지내다 탈북한 임영선씨는 “어느 강철공장의 생산량이 50만 톤이고 그중에 10만 톤이 2경제위원회 폰드(배정량)라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10만 톤은 우선적으로 생산해 2경에 공급해야 한다”면서 “주민용 칼을 만들 강철이 부족한 데도 군수

용 강철은 지하에 비축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임영선씨는 북에 있을 때 제2경 관계자들이 국가예산의 절반을 사용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북한의 군수산업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각종 거래를 확대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대목을 맞고 있다. 지난해 7월 27일 전승절 행사를 빌미로 김정은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을 평양 ‘무장장비 전시회-2023’에 초청하여 600mm 초대형 방사포, 미국이 보유한 정찰기 RQ-4 글로벌호크와 모양이 비슷한 전략무기 정찰기 및 무인공격기 등 최신무기를 과시하며 세일즈에 나섰다.

과거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사정하여 무기를 구매하던 시절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김일성은 6·25 남침을 3개월 앞둔 1950년 3월 소련이 약 1억3000만 루블 어치의 무기를 제공하면 그 대가로 총액 1억 3305만 루블 상당의 금 9t, 은 40t 및 우라늄이 함유된 희귀광물인 모나자이트 1만5000t을 인도하겠다고 사정하였다(와다 하루키의 한국전쟁 전사, 2023). 당시 북한이 자체적으로 생산 가능한 무기는 7.62mm 기관단총에 불과했었다. 결국 김일성은 당시 최강의 소련제 T-34 전차 242대를 지원받아 남침을 감행했다. 지난 2년간의 전쟁으로 재래식 무기가 고갈된 모스크바가 평양에 무기 지원을 요청하는 묘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김정은은 2023년 8월 2박 3일간 다수의 군수공장을 돌아보며 '국방경제사업'의 강화로 무기와 군수물자의 대량생산을 강조했다.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만큼 수출용 무

기 생산에 박차를 가하려는 의도다. 24시간 공장을 가동하고 러시아의 주문 목록이 북한에게 전달되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구소련에서 사용했던 표준형의 보병 및 포병장비와 탄약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우크라이나 야전에서 가성비 높은 무기들이다. 북한의 지대공(地對空) 미사일(SA-5)은 부품 상당수가 러시아제여서 무기 호환성이 높다. 이미 우크라이나군은 북한이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사용했던 사용했던 122mm 다연장 로켓탄을 노획해서 사용하였다. 포탄에 적힌 ‘방-122’에서 방은 다연장로켓의 북한식 명칭인 ‘방사포’의 약자이고, 122는 122mm를 의미한다. 북한이 용병 바그너 그룹에게 판매한 것인지 러시아에게 공급한 것인지 확실치는 않다.

북한은 기존에 보유한 재래식 무기들을 러시아에 넘기고 원유, 각종 신무기 부품 및 식량 등과 현물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로 달러와 유로화의 결제는 어렵고 루블화는 용도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북한으로서는 기존 노후 무기들을 실속있게 정리하면서 신무기 개발에 나서는 등 일거양득이다.

미국은 2023년 9월 들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방문 첩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하며 북·러 밀착에 사전에 경고장을 보냈다. 미 백악관은 김정은과 푸틴 대통령은 친서를 교환하며 무기거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에이드리언 왓슨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9월 4일 “우리는 김정은이 러시아에서 정상급 외교를 포함한 무기거래 논의를 지속하길 기대한다는 정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북·러 양국이 김

위원장의 방러를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를 공개한 것이다. 미국 정보당국으로부터 관련 사항을 전달받은 뉴욕 타임즈(NYT)는 미국과 동맹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김 위원장이 이달 러시아 방문 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평양에서 장갑열차를 타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해 푸틴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전했다.

백악관은 2022년 12월 북한이 러시아 민간 용병회사 바그너그룹에 로켓과 미사일을 전달하는 정황을 공개했고, 북한은 이를 부인했다. 백악관은 2023년 3월 북·러 무기 판매 협상 첩보를 재차 공개한 데 이어 8월 30일 “양국 간 무기 협상이 활발하게 진전되고 있다는 새 정보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러시아군 동향에 관한 첩보를 선제 공개한 것처럼 북·러 무기거래 기밀정보를 미리 공개하면서 견제에 나선 것이다. 백악관은 2023년 1월 하산-두만강에서 북한의 무기가 바그너 그룹에게 넘어가는 2022년 11월 18일 위성사진을 공개하며 러·북 간 무기거래를 지적하였고, CSIS도 백악관 발표 이후인 23년 2월 17일 해당 지역의 당시 열차 통행량이 증가하였다고 발표했다. 올 1월 2일, 우크라이나 무기 조사관 크리스티나 키마추크는 하르키우 시내의 한 건물에 특이한 모양의 미사일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키마추크는 수도 키이우의 안전한 장소에서 엉망이



〈지난해 7월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을 방문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 국방장관과 함께 ‘무장장비전시회-2023’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된 잔해를 마주할 수 있었다. 키마추크는 금속과 빠져나온 전선들 사이에서 작게 적힌 한글을 발견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정보도 발견했다. 잔해에 ‘112’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던 것이다. 이는 북한의 연도 표기 방식에서 2023년을 가리킨다. 이렇게 키마추크는 북한 무기가 조국을 공격하는 데 사용됐다는 명백한 증거를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 러시아는 2023년 7월 쇼이구 장관이 방북했을 때 김정은에게 직접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할 수 있는 탄약과 포탄, 그리고 대(對)전차 미사일 등을 요청했다. 북한에서 ‘주체포’라고 불리는 자주곡사포와 이에 사용할 170mm 곡사포탄 등 포병 무기도 주문 목록에 포함되었다. 북한은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때도 이란에 주체포를 제공했었다. 러시아는 포탄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주체포 같은 구형 무기도 필요하다. 북한이 지난해 수 십차례 동·서해상으로 시험 발사한 대남 타격용 단거리탄



〈2023년 9월 6일 신포조선소에서 열린 '김군옥 영웅함'의 진수식 모습 (사진=조선중앙통신)〉

도미사일(SRBM)인 'KN-23'을 러시아에 제공할 수도 있다. 북한 무기 대부분은 러시아 기술 기반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KN-23 등 북한 무기를 당장 갖다 써도 큰 문제가 없다.

북한은 포탄 등 재래식 무기 제공 대가로 러시아에서만 받을 수 있는 핵심 무기 기술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김정은이 2021년 1월 꼭 개발해내겠다고 공표한 '5대 전략무기' 중 하나인 핵잠수함 관련 기술이 필요하다. 북한은 핵잠수함을 대미 협상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보고 있다. 재래식 디젤 잠수함은 짧으면 하루, 길게는 2주에 한 번은 물 위로 올라와야 해 장기 작전이 어렵다. 하지만 핵잠은 3~6개월간 잠항(潛航)하다 미 본토 근처에서 기습적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할 수 있어 미국에 치명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올해만 2차례 발사했다 실패한 군사 정찰 위성 탑재 우주 발사체 관련 기술과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정상 각도 발사, 다

탄두(MIRV) 기술 등이 이전될 수도 있다. 김정은이 지난 3월 공개한 전술 핵탄두 '화산-31'의 공중 폭파 기술 등 7차 핵실험을 위한 핵심 기술 이전도 검토 대상이다. 미국이 사전에 강력한 경고장을 날리며 예민한 이유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북러 정상회담 이후 블라디보스토크에 방문할 당시 전략핵추진잠수함(SSBN) 등

이 위치한 태평양함대를 방문했으며 마셜 샤포 시니코프 대잠호위함에 올라 러시아 해군총사령관으로부터 해설을 듣기도 했다. SSBN 건조는 2021년 김 위원장이 제시한 5대 국방 과업 중 하나다. 북한은 23년 9월 8일 수중에서 핵공격이 가능한 첫 전술핵공격잠수함인 '김군옥 영웅함'(제841호)을 건조했다고 밝혔다. 김정은은 진수식 축하연설에서 "오늘 진수하게 되는 제841호 '김군옥영웅함' 저 실체가 바로 지난 해군절에 언급한 바 있는 우리 해군의 기존 중형 잠수함들을 공격형으로 개조하려는 전술핵잠수함의 표준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술핵공격잠수함 건조가 미국의 핵추진잠수함 전력에 대항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앞으로 계획돼 있는 신형 잠수함들 특히 핵추진잠수함과 함께 기존의 중형 잠수함들도 발전된 동력체계를 도입하고 전반적인 잠항작전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전술핵공격잠수함에 이어 핵추진잠수함도 건조하겠다는 계획도 드러냈다. 물

론 기존 로미오급(1700톤) 잠수함을 개량하고 상층부에 미사일 발사관을 10개나 설치하여 등 북한의 주장이 과장되었다는 우리 군의 평가도 있고 미군 군사매체도 '프랑켄서브(이상한 잠수함)'라는 별명을 붙이는 등 문제는 있지만 개발 속도가 매우 빠른 것은 분명하다.

북한의 수출용 무기 대량 생산은 동북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에 안보 불안 요인이다. 특히 북러의 위험한 군사 밀월은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제 북한의 군수산업과 군사적 위협은 한국 단독으로는 대응하기 쉽지 않은 수준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북·러 간에 무기거래는 단순 군수품을 넘어 북한군의 약점인 전투기 및 각종 미사일 무기 등으로 확대될 것이다.

북한에 러시아의 첨단 무기 기술이 이전될 경우 한국형 3축 체계 등 대북 핵·미사일 방어망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한미는 주한미군의 사드와 패트리엇, 천궁 등으로 방공망을 구축하고 있지만 북한 지상이 아닌 동해 등 측면에서 날아오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나 전략수항미사일 등에는 취약하다. 북한은 이번에 러시아에서 위성항법 시스템인 '글로나스(GLONASS)'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의 위성 위치 정보를 공유받는다면 북한에서 주일 미군기지까지 사거리인 전략수항미사일의 운용력을 대폭 상승시킬 수 있다.



〈지난해 9월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만난 푸틴 러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북·러가 군사협력을 전면화하면 북핵의 외교적 해결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대북제재의 효력도 급감할 수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에 찬성한 러시아가 스스로 그 제재를 허무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북한에 대량살상무기(WMD)는 물론 모든 재래식 무기의 수출입, 판매 및 이전을 금지한 안보리 대북제재를 상임이사국이 앞장서 무너뜨리는 것이다. 지금도 안보리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북한 도발에도 새로운 대북제재가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정상회담을 통한 북러 군사협력 합의는 강대국이 지정학적 경쟁 논리를 앞세워 국제사회가 합의한 제재 체계를 무력화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

북·러 정상회담에서 무기거래를 넘어 북·중·러 연합훈련과 군사 공조 확대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러시아는 북한에게 중·러의 군사훈련에 북한의 참가를 요청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지난 7월 전승절 행사 참가 후에 세르게이 쇼이

북한의 군사경제 및 무기개발 실상과 위협

문 성 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5월 15일 자 보도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하 김정은)이 14일 전술미사일 무기체계를 료해(파악)하는 자리에서 제2경제위원회 산하 국방기업소들의 올해 상반기 생산 실적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은은 2024년도 군수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는 것으로써 우리 군대의 전쟁준비에서 획기적인 변혁을 안아올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한 사실도 통신은 전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생산된 미사일 발사대는 인민군 서부작전집단의 화력습격연합부대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김정은이 전쟁 준비를 언급하고 생산된 미사일이 서부지역의 부대에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아 그가 연말 연초 거듭 언급해온 2국가론과 주적론을 염두에 둔 대남무력적화전락 노골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5월 들어 김정은이 연일 군수 부문을 현지 지도하면서 무기체계 개발 현황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그 속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월 10일에는 240밀리 방사포 무기체계를 파악하고 유도 기능을 갖춘 방사포탄의 시험사격을 참관했고, 11일과 12일에는 제2경제위원회

산하 중요 국방공업기업소들을 현지 지도하면서 방사포를 싣는 차량을 직접 시운전하고 새로 개발한 저격무기를 시험사격하기도 했다.¹

그런데 이 자리에서 남조선이나 미제를 향한 직접적인 자극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김정은의 행보가 북한제 무기의 큰 손인 러시아를 향한 방위산업 세일즈에 방점을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11일과 12일 양일 동안 방문한 군수공장들은 총, 탄약, 포탄, 방사포 등 재래식 무기를 생산하는 곳이었기에 우크라이나와 장기전을 벌이며 화력 우위를 점해야 하는 러시아에 매우 유용한 무기로 평가된다는 것이다. 14일 방문한 전술 미사일의 경우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무기체계라는 점에서 이 또한 대러 수출품 목록에 올려보려는 의도로 보는 것이다.


김정은 의도가 어디에 있든 최근 그의 집중적인 무기개발 행보와 대러 군사협력 등 불법 공조는 대한민국의 안보는 물론, 국제평화를 위협하

¹ 10점 과녁에 정확히 탄착한 표적지를 공개하면서도 김정은이 저격총을 직접 사격하는 영상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는 최근 부쩍 강화되고 있는 김정은의 우상화의 연장선으로도 해석 가능한 측면이다.

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북·러 연합훈련 가능성과 관련해 “왜 안 되겠는가”라며 “우리는 이웃”이라고 언급했다고 러시아 언론이 보도했다.

북·중·러가 연합훈련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전략핵이 한·미·일에 대항할 핵심 축으로 공식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북한은 중·러로부터는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동시에, 재진입 기술 등 실제 작전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 이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할 명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이라는 변수가 능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동북아 역학 체스판이 완벽한 ‘강 대 강’ 경쟁 구도로 변질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황에 따라 러시아가 북한의 참전 또는 용병 투입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6·25 남침이후 북한에게 이러한 국제정세는 없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북한의

재래식 무기가 인기 상품이 되었다. 재래식 무기 생산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의 전략적 가치가 급등하여 북한외교의 만조기가 형성되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과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지난 5월 8일 밝혔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과의 양자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으며 그들과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더욱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해선 “우리의 훌륭한 매우 유망한 파트너”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무기는 북러를 결합시키는 최고의 아이템이다. 북한의 군수산업은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날개를 날았다. 반대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세력 균형이 무너지는 시나리오가 전개될 것이다. 



〈올 5월 11~12일 김정은 위원장이 제2경제위원회 산하 중요 국방공업기업소를 현지지도하며 신형 240mm 방사포(다연장로켓포의 북한식 표현)를 싣는 차량 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고 침해하는 행위이다. 북한제 무기가 러시아에 이미 지원되었고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된 증거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에 러시아가 반대급부를 북한에 제공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무기개발은 독특한 경제체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주민들은 먹을거리조차 부족해 굶주리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은 연일 무기개발 현장을 돌아보며 독려하고 있는 것은 그들만의 경제체제 특징과 연관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북한의 군사경제체제 특징과 무기개발의 실상을 짚어보고 근본 속내는 무엇인지, 국제사회 및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응 방향, 기도제목을 제시한다.

북한의 제2경제위원회와 군사경제

북한에는 특이하게도 인민경제라고 부르는 일반 경제와 제2경제라고 부르는 군사(군수)경제가 있

다.² 형식적으로 보면 북한 정무원 내각이 경제계획과 관련하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만, 실제 북한에서 내각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는 제1경제(제2경제의 반대말), 즉, 인민 경제에 국한되어 있다.³ 북한 군수산업이 명실공히 북한의 제2경제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1966년 10월 제2차 당대표자회에서였다. 이 회의에서 김일성

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켜 나갈 것을 재천명하면서, 군사전략상 중요한 지대를 확고히 하며 군수공업을 발전시키고 군수공업에 필요한 물자 예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군수공업이 강조되고 확장됨에 따라 1960년대 말 내각에 군수공업만을 전담하는 제2기계공업부가 따로 신설되었고, 당중앙위원회에 군수공업 담당비서를 두어 군수산업 전반을 총괄하게 하였다. 그 후 군수생산이 더욱 방대해짐에 따라 1970년대 초에 제2경제위원회를 창설했다고 알려진다.⁴

2 보통 군사경제와 군수경제가 혼용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군사경제로 통일하여 사용하려고 한다.

3 이 사실을 잘 알아야만 북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은 먹을 것이 없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김정은이 핵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 개발에 올인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제도적 배경이 있다는 점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4 <https://nkinfo.unikorea.go.kr/nkp/KNWLDG/view/KNWLDG.do> (검색일 : 2024. 5. 16). 문제는 김일성의 군수공업의 강조는 6.25 남침에서 실패한 그가 제2의 6.25를 획책하고 대남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이른바 4대군사노선과 연관된 것이다. 정상적인 경제를 무시하고 무기생산에 집중해온 북한은 결국 경제를 망치는 결과를 놓고 만 것이다.

본래 제2경제위원회는 중앙인민위원회(내각의 전신) 소속이었으나, 1993년 국방위원회(현 국무위원회)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내각(일반 경제)과는 상관없이 독자적 조직체계 및 생산 활동을 전개하였다. 제2경제위원회는 8개의 총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구개발을 위한 국방과학원(구 제2자연과학원)과 자재공급을 위한 자재상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무기생산에 필요한 물자를 수입하고 생산품의 해외 판매를 담당하는 무역회사와 은행 등 많은 기관을 산하에 거느리고 있다.

제2경제위원회는 ‘제2의 정무원(내각)’이라는 김일성 교시에 의하여 내각과 상관없이 인민경제에 우선하여 계획, 재정, 생산, 공급을 독자적으로 추진해 왔다. 산하의 경제기관뿐만 아니라 내각의 일반생산기관까지 ‘일용분공장’, ‘일용직장’ 등의 명칭 하에 군수생산시설을 갖추어 놓고 군수품을 생산하고 있다.⁵ 현재 제2경제위원회는 내각과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계획, 생산, 분배, 대외무역을 관장하는 별도의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다. 제2경제위원회 산하에는 수백 개에 달하는 군수공장 및 기업소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북한은 이러한 공장과 기업소를 통해 군사력 증강에 필요한 각종 물자와 장비 대부분을 독자적으로 개발·생산하고 있다. 현재 제2경제위원회 위원장은 고병현인데, 제2경제위원장이었던 오수용이 2023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5 이렇게 민수생산 기업소에 일용분공장(직장)을 차려놓고 군수품을 생산하게 하는 북한의 목적은 제2경제위원회가 단독으로 모든 군수품을 생산할 수 없는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민수생산 기업소에 일찍부터 군수생산시설들을 갖춰놓고 생산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만약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신속하게 군사경제로 전환시키려는 정책 때문이다. 무기생산과 관련이 있는 모든 공장에 일용분공장 또는 일용직장이 들어있으며, 설비가동률이 30%에도 못미치는 현재와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군사공업의 정상가동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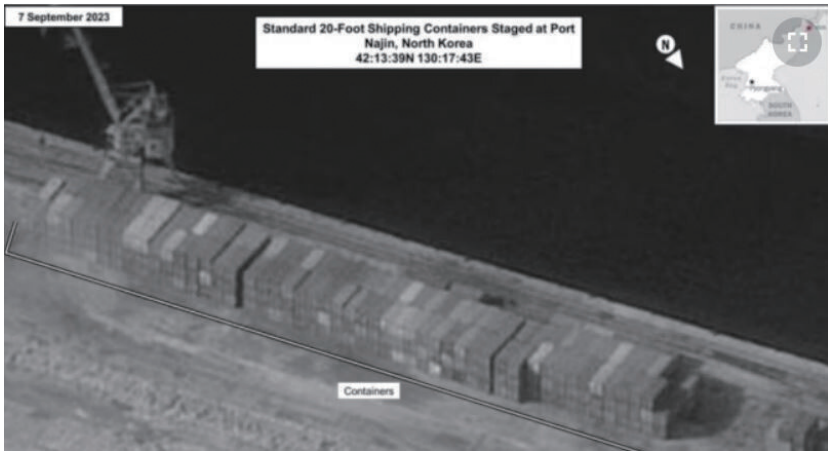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경제비서로 조동된 이후 빈자리에 2024년 2월 그가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⁶

김정은 집권 이후 무기개발 특징과 그 속내

위에서 북한의 이원화된 경제체제와 무기개발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무기개발은 어떤 특징을 보이며, 이에 담긴 김정은의 속내는 무엇인가를 살펴보자.

2011년 말 아버지 김정일의 사망으로 권력을 물려받은 김정은은 핵미사일 개발에 올인했다. 이는 정권 보위와 핵 보유를 통한 대남적화전락 목표 달성 여건을 만들려는 목적이었다. 이에 김정은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네 차례나 핵실험을 감행했다. 그해 11월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 15형을 발사한 직후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기도 했다. 20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정상회담을 징검다리 삼아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을 성사시켰다. 마치 비핵화에 호응하는 척하면서 핵 보유 기정사실화와 제재 해제를 시도했다. 하지만 하노이 노딜로 기만적인 꿈수가 좌절된 이후 김정은은 대남, 대북 강경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이를 핵미사일 역량 강화 기회로 활용했다. 특히 2019년부터는 남측의 주요 기지와 지휘시설을 직격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 개발에 집중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6 <https://namu.wiki/w/%EA%B3%A0%EB%B3%91%ED%98%84%28%EB%B6%81%ED%95%9C%29> (검색일 : 2024. 5. 16)



〈지난해 10월 미 백악관이 공개한 북한 나진항에 적재된 300여개의 컨테이너들. 백악관은 북한이 러시아에게 컨테이너 1천개 이상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KN-23), 북한판 에이태컴스(KN-24), 초대형 방사포(KN-25) 등을 개발하고, 로켓의 고체화, 탄도의 활공화, 발사 플랫폼의 다양화를 시도했다. 2021년 1월 8차 당 대회에서 김정은은 전략 무기 5대 과업을 제시하고 2025년까지 완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⁷ 소형핵탄두(화산-31)를 북한이 보유한 모든 미사일에 탑재 가능하다는 점도 과시했다. 2022년 9월 핵무력 정책 법제화로 핵 선제 타격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도 마련했고, 전술핵 타격훈련을 직접 지도하기도 했다. 최근 김정은은 초대형방사포를 발사과정에서 핵 방아쇠라 불리는 핵반격가상종합훈련을 지도하고 우리를 향한 노골적인 핵 협박을 이어가기도 했다. 최근 일련의 행보는 김정은의 2국가론, 교전국 관계 주장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는 분단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대남무력적화전략의 노골화로 봐야 할 것이다.

7 5대 과업은 ① 극초음속 미사일, ② 다탄두유도기술, ③ 고체연료, ④ 핵추진잠수함, ⑤ 정찰위성 개발이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이미 여러차례 시험발사를 했고, 단거리부터 장거리 미사일까지 고체연료 로켓으로 전환하고 있다. 정찰위성 만리경 1호는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작년 11월 궤도진입에 성공했고 올해 3기를 더 발사할 것임을 공언했다.

중해왔다.⁸ 2023년 9월 김정은이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푸틴을 만난 이후 러북간 불법 군사협력이 노골화되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북한이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었던 152mm 포탄, 122mm 방사포탄 수백만 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십 발을 러시아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김정은이 제2경제위원회 산하 군수공장을 새로 짓고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탄에 유도 기능 부착 등을 통해 사거리 연장과 정확도를 높이려는 일련의 시도는 대러시아 무기 수출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뿐 아니라 하마스-이스라엘 전쟁 등에서 반미독재 국가 및 집단들에게 무기를 팔아보려는 속내도 읽을 수 있다. 그 의도가 어떠한 북한 정권의 러시아와의 밀착은 김정은의 불법적인 핵무력 고도화의 뒷배를 확보함과 동시에 그의 대남적화전략 성취를 실질적으로 지

8 홍민, “김정은의 중요 국방공업사업소 현지지도 및 240mm 신형방사포 분석”, 『온라인시리즈24-35』(통일연구원, 2024). 4~5쪽 참조.

원해 줄 수 있는 세력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의 무기개발과 대러 밀착은 무력적화전략의 노골화

한국은 물론, 미국 본토까지 타격 가능한 미사일 개발에 몰두해온 김정은은 최근 방사포의 성능 개량과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개발 등 재래식 무기개발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이는 김정은이 선포한 바 교전상황에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남한 초토화 및 영토평정 등 무력적화통일을 염두에 둔 행보라 할 수 있다. 미국과 담판을 통해 돌파구를 열어보려 했던 김정은이 작년부터 푸틴과 급속한 브로맨스를 과시하고 있는 것은 독재자라는 공통점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제재를 받는 동병상련의 처지와 무관치 않다. 김정은의 도움이 절실한 푸틴은 북한의 불법행위를 감싸주고 김정은의 정찰위성 개발을 돕겠다고 천명했다. 오랫동안 소원했던 러시아와 북한이 밀착하는 모습을 보면서 불길하게도 6.25 남침 당시 소련 북한 간 밀착 모습이 떠오른다.

김정은은 불법적으로 보유한 핵미사일과 러시아와의 불법 거래를 통해 당면하게는 일인 독재 정권의 수명 연장을 시도하는 동시에 대남무력적화통일전략을 노골화하고 있다. 겉으로는 마치 ‘통일 지우기’ 운운하고 있지만, 이는 대한민국으로의 흡수통일은 차단하면서, 한미동맹을 이간하고 차단한 이후 자기들이 보유한 핵미사일 역량으로 대남전략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5월 17일 북한 김여정은 조선중앙통신 보도로 나온 담화를 통해 “적대세력들

이 우리가 생산하는 무기체계들이 대러시아 수출 용이라는 낭설로 여론을 어지럽히고 있는 데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겠다”고 하면서, “최근 우리(북)가 공개한 방사포들과 미사일 등의 전술 무기들은 오직 한 가지 사명을 위하여 빚어진 것이라며 서울이 허튼 공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데 쓰이는 것임을 숨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⁹

대한민국 안보와 통일을 위한 전략

우리 안보는 강력한 힘으로만 지켜질 수 있다. 첫째는 우리의 자위역량을 고도화하는 것이고, 한국형 3축체계 등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 안보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구비해야 한다. 둘째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안보 협력을 더욱 돈독히 해야 한다. 1953년 정전 이후 북한 정권이 제2의 6.25를 일으키지 못한 것은 강력한 한미동맹 때문이다. 한미연합억제력이 작용하는 한, 김정은의 대남무력적화전략은 환상에 불과한 것이다. 셋째는, 우리 국민이 통일의 염원을 갖고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뜨게 해야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중심의 자유통일만이 인간답게 사는 길이며 진정한 행복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아울러 국제사회와 힘을 합쳐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자유 통일이 한반도 평화는 물론, 북한 주민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인권을 누리게 하는 길임을 적극 설득하고 지원을 확보해야 한다.


9 김여정, “우리 무기 사명은 한 가지...서울이 허튼 공리 못하게(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40517009951504?section=politics/all&site=topnews01_related (검색일 : 2024. 5. 17)

우리의 기도제목

첫째,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불법무기 개발과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구비하게 하시길, 특히나 한미 정상이 합의한 워싱턴선언에 따른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실효성과 신뢰성이 더욱 강화되고 캠프데이비드합의에 따른 한미일 안보협력도 제고화되며, 유엔사가 유사시 전력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둘째,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군사경제와 무기개발, 그리고 대러 밀착이 대남무력적화전전략의 일환임을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진영을 떠나 우리 국민 모두가 국가안보에서는 단합하

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자유 평화통일을 향한 염원을 갖게 하시며, 국제사회의 압도적인 지지를 확보하여 광복 100주년인 2045년 이전에 통일의 꿈이 성취되도록 기도하자.

셋째, 북한 김정은 정권이 지금과 같이 핵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개발과 러시아 등 권위주의 독재국가들과의 불법적인 연대가 생존의 길이 아니라 결국은 파멸의 길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하시며, 핵을 내려놓고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 및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정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 구원의 역사가 불길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자. <끝> 

칼럼 3

北 핵·미사일 고도화와 대외전략의 공세적 변화

이영철 (국방대·동국대 교수, 숭실평화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전 국방정보본부장)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김정은은 집권 이후 북한은 최근까지도 핵·미사일 개발과 고도화를 통치의 중심에 놓고 대외전략을 구사하고 있다.¹ 김정은은 특히 안보정책 차원에서 핵무기에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부여하고 대외정책 및 대미전략의 핵심 수단으로써 통치체제 강화의 가장 중요한 기제로 활용해 왔다.

김정은 시대 핵·미사일 고도화 전략은 2017년 11월을 전후로 크게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제1단계는 핵-경제 병진노선을 채택한 2013년 3월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성공적으로 발사하고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2017년 11월까지이며, 제2단계는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2019년 2월) 결렬 이후부터 현재까지이다.² 각 단계별 北 핵·미사일 개발 관련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제1단계 핵·미사일 고도화 기간에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

레의 핵실험과 함께 첨단 미사일 개발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수밖에 없으며 국제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핵실험을 김정은은 집권 초 5년간 무려 4차례나 실시한 이후 2017년 11월 29일에 마침내 ‘핵무력 완성’과 함께 북한이 이제는 ‘전략국가’임을 대내외에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은 제1단계 기간 핵실험 외에도 미사일 사거리별 능력 재고, 고체연료용 로켓엔진 개발, 중장거리 미사일 모델 개발 등 괄목할만한 기술을 축적할 수 있었다.³ 특히 김정은은 집권 원년인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신형 액체 및 고체추진 탄도미사일 연구개발에 집중하였다. 액체추진 미사일은 백두산 엔진을 이용한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을 새로 개발하여 2017년 이후 총 세 차례에 걸쳐 일본열도 상공을 정상 각도로 통과하는 시험발사를 감행하였다. 또한 2017년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4형과 화성-15형을 연달아 발사하여 미국 본토를 위협할

1 홍민, “북한의 전략국가론과 핵무기 고도화,” 『KINU 연구총서』, 22-24(통일연구원, 2002), p. 19.

2 홍민, “북한의 전략국가론과 핵무기 고도화,” 위의 논문, 2022, pp. 80~109.

3 홍민, “북한의 전략국가론과 핵무기 고도화,” 위의 논문, 2002, pp. 83~84.



〈철로 위 열차에서 발사되는 'KN-23'(북한판 이스칸데르 전술유도탄)의 모습. 북한은 이를 철도기동미사일체계로 지칭한다. 북한 전역에 촘촘하게 깔린 철도망을 이용해 어느 지역에서든 미사일을 쏠 수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수 있는 핵 공격능력을 과시하기도 하였다.⁴

둘째로 제2단계 핵·미사일 고도화 기간은 2019년 2월에 개최된 북-미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대미 압박의 강도를 다시 높이고 추후 협상력 제고를 위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했던 시기이다. 이 기간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은 없었지만,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그동안 폐기되었던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를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로 복구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4번 갱도는 대규모 핵실험을 위한 갱도일 가능성이 높으며 '핵무기 소형화와 '초대형 핵탄두 개발'을 동시에 준비 중이거나 수백 KT의 고위력(수소탄) 핵실험이 가능토록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⁵

한편, 북한은 제2단계 핵·미사일 고도화 기간에 다양한 미사일 개발 및 시험발사도 활발히 진행하였다. 2022년 2월과 11월에 화성-17형을 동해상으로 여러 차례 고각으로 발사하였다. 또한, 북한 스스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미사일

을 2021년 이후에 총 세 차례에 걸쳐 발사하는 등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시험발사도 활발히 진행하였다. 북한은 이 시기에 고체추진 탄도미사일도 개발하여 2019년부터 시험발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평가받는 전술유도탄 기술을 기반으로 한 북한판 ATACMS형이나 고종량 탄두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미사일 발사방식을 다양화하여 발사원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차륜형이나 궤도형, 심지어 철도기동형 등 다양한 미사일 발사 플랫폼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⁶ 아울러 이 기간에 북한이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미사일을 개발한 것은 타격 정밀도 향상은 물론 우군의 요격에 대한 회피기동 등 전술적 요구성능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은 당시 북한의 핵 개발 수준으로는 미국 정부가 더 이상 대북협상 의지나 선행 변화의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면서 ICBM 등 전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노선을 분명히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그런 상황인식의 변화에서 나온 것이 2021년 1월에 개최된 제8차 당대회 이후 발표한 전략무기 개발 방향과 '전략무기 개발 5대 핵심과제'⁷이다. 이는 북한이 각종 전략무기를 불가역적 수준으로 고도화한 이후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군축회담을 통해 대북제재를 완화시키고 명실상부 핵무기와 ICBM을 보유한 실질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북한은 최근에도 평

〈표 1〉 김정은 시대 핵무력 고도화와 대외군사전략의 공세적 변화

구 분	하노이 회담 이전	하노이 회담 이후
핵무력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제6차 핵실험 성공화성 15형 ICBM 발사 성공미사일 정밀도, 사거리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저위력 전술핵 추가 개발고위력 핵탄두 추가 생산핵 지휘통제통신 체계 발전
대외 군사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전략적 지위' 용어 사용'전략국가' 용어 사용'국가핵무력 완성' 대외 선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핵 선제 사용 가능 법령 채택새로운 결심, 웅대한 작전 선포정면돌파전, 대미장기전 선포

출처:홍민, "북한의 전략국가론과 핵무기 고도화." 앞의 논문, 2022, pp. 75~123; 김상기 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관계』 (서울: 통일연구원, 2018), p. 59등을 참조하여 재작성.

북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고체모터 연소시험을 계속하고 있으며, 2023~2024년간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잇달아 시도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향후 이를 기반으로 ICBM 및 위성 발사체 개발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⁸

핵·미사일 고도화와 대외전략의 공세적 변화

북한은 1990년대 초 구소련이나 동구권 해체 이후 항상 적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하며 생존하기 위해서는 싸워 이겨야 한다고 믿는 집단적 '피포위식'⁹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집중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가시적으로 드러난 성과는 북한으로 하여금 지정학적 안보 콤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였다. 다음 〈표 1〉은 김정은 시대 핵무력 고도화에 따른 대미 군사전략의 공세적 변화 내용을 도표로 정리한 것이다.

8 대한민국 국방부, 『2022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22), pp.30~32.
9 군사용어로서 적에 의해 포위된 상태에서 느끼는 피해의식과 수동성 같은 감정이다. 다른 사람들의 나쁜 의도를 갖고 접근하여 자신들을 끊임없는 공격당한다든지, 억압됐다든지, 고립됐다든지 같은 상태가 놓여졌다고 믿는 집단적 정신 상태이다. 『나무위키』, <https://namu.wiki/w/%ED%94%BC%ED%8F%AC%EC%9C%84%20%EC%9D%98%EC%8B%9D> (검색일: 2022년 4월 22일)

〈표 1〉도표를 보면, 북한의 핵무력이 고도되어 감에 따라 북한의 대외군사전략도 더욱 공세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정은 시대 핵·미사일 개발과 고도화 성과를 통해 북한이 보여주는 공세적인 대외군사전략은 마치 파키스탄의 핵 능력 발전이 그들의 대외 군사전략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과 비견된다.¹⁰ 파키스탄은 자체 핵 능력을 핵탄두와 투발수단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조직화하였으며, 파키스탄의 핵 능력 발전과 대외 군사전략의 공세적 변화는 마침내 2003년에 인도와의 평화협정을 이끌어냈다. 파키스탄이 1998년 핵 개발 성공 이후 1999년에는 인도-파키스탄간 10주간의 총돌로 1,000여 명의 사상자를 냈고, 핵무기를 보유한 양측 간 핵 전쟁 위기까지 고조되었으나, 미국의 중재 하에 인도와 파키스탄은 2003년에 다시 정전협정에 합의하였다.

물론 김정은이 구상하는 핵·미사일 고도화를 통한 대외전략의 공세적 변화가 파키스탄처럼 성공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왜냐하면 북한과 파키스탄은 국제환경과 안

4 대한민국 국방부, 『2022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22), p. 30.
5 “北, 3번 갱도 복구 이어…'수소탄 실험' 가능한 4번서도 움직임,” 『중앙일보』, 2022년 6월 16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9615> (검색일: 2022년 9월 15일)

6 대한민국 국방부, 『2022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22), p. 30.
7 ①극초음속미사일, ②수중 및 지상에서 발사되는 고체형 ICBM, ③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 무기, ④군사정찰위성 발사, ⑤무인정찰기 개발 등 5대 과업을 제시하였다.

10이준일, “핵 보유 이후 파키스탄 핵억제전략의 변화: 핵 능력 발전이 전략 변화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군사』, vol 8 (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20), pp.73~105.


보 여건이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파키스탄은 먼저 핵을 개발한 인도와 대결구조 속에서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중국의 지원 속에서 핵을 개발하였다. 따라서 북한과 파키스탄은 여러모로 상황이 다르다.

나가며

김정은 집권 10여 년이 지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계획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둠으로써 북한의 대외군사전략도 더욱 공세적으로 변하고 있다. 김정은은 지난 10여 년 동안 그의 지도력과 국가적 역량을 핵·미사일 고도화와 같은 전략적 목표에 집중하였으며, 그 결과 핵·미사일 고도화는 다시 북한의 대외군사전략의 공세적 변화를 견인하였다는 측면에서 이들은 상호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은 핵무력 고도화 과정에서 미국의 강압전략(압박과 제재)에 오히려 역으로 강하게 맞대응하는 역강압전략을 구사함으로써 2018년과 2019년 초에는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도 하였다. 북한은 핵무력을 더욱 고도화하여 언젠

가 재개될 미국과의 대화테이블에서 자신들의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는 마치 파키스탄이 1990년대 말 핵 개발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이후 인도를 대상으로 매우 공세적인 군사전략을 펼쳤음에도 확전으로 이어지지 않고 마침내 2003년에 인도와 파키스탄 간 카슈미르 지역 분쟁 해결을 위한 정전협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당시 파키스탄의 대담했던 대외군사전략과 비견된다.

이제 우리는 핵을 보유한 김정은 정권과 상시 첨예하게 대치하게 되었다. 최근 동북아시아의 국제환경적 변화 속에서 핵을 보유한 북한은 중국 및 러시아와 더욱 밀착하고 있다. 최근 북한이 더욱 고도화된 핵 개발 및 핵 투발 수단 개발에 진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북한제 무기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뿐 아니라 중동지역 등 세계 곳곳에서 관찰되어 우리에게 대한 위협은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나라 안보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주게 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와 대외군사전략의 공세적 변화가 국가안보에 미칠 다양한 변화를 민감하게 살피고 분석하여 철저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수기

탈북민 수기 : 손이슬 자매

제 3화

한국행이 어그러지고 중국의 시골에서 지낸 시간이 벌써 햇수로 거의 5여년 정도 되었다. 이곳 생활에는 그럭저럭 적응했지만 나를 배웅하시던 부모님의 모습을 잊을 수 없었다. 탈북을 결심했던 것은 단순히 한명 잘 살아보겠다는 것이 아닌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나는 한국행을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남편에게 함께 남조선으로 가자고 계속 설득하였고, 그러면서 기회가 되는 대로 북에 계신 부모님과 연락할 방안을 찾아보았다. 남편은 나의 설득에도 요지부동이었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를 써 봐도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했다. 북에 계신 부모님과의 연락도 여의치 않았다. 고향을 떠날 때 아버지가 작은 종이에 일본 친척들의 전화번호를 적어서 손목시계에 끼어 주셨지만 전화를 걸 수 있는 전화기가 없었다. 남편은 내게 2년 동안 핸드폰을 주지 않았다. 2-3년이 지나서야 집안 구석에 안 쓰는 폰 하나를 구해서 개통을 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번호들은 이미 연락이 되지 않았다.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 같았다. 무엇보다 딸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이제는 진짜 남조선에 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정말 모든 소망과 희망이 사라진 그때, 이제는 실낱같은 빛줄기조차 암흑으로 덮여 버린 그때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십자가를 찾아가라.” 그동안 잊고 있었던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강을 건너고 어려움을 만나면 꼭 십자가를 찾아가라고 하셨던 말씀을 그 동안은 까맣게 잊고 지내다가 절망에 빠지고 나서야 떠올리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마저도 엄두가 나지 않았다. 우리 집은 외진 지역에 있었고, 시내에 나갈 일이 있더라도 십자가가 쉽사리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심하게 앓게 되는 일이 있었다. 돈을 벌기 위해 식당에 나가 일을 하던 때였는데 아무래도 아이가 어리다보니 아이를 맡기고 출근을 해야 했다. 당시는 3~4월이었지만 내가 살던 곳의 날씨는 여전히 추웠다. 아이가 감기가 완전히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손에 맡기니 점점 감기가 심해지기 시작했다. 어쩔 수 없이 하던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다녔지만 열이 떨어지지 않았다. 결국 병원에서는 시내에 있는 본원으로 가야지만 치료가 될 것 같다며 시내에 있는 아동병원으로 보냈다. 일주일을 입원하고 나니 상태가 호전이 되어 퇴원하고 집으로 향하는데 버스 창밖에 우연하게 “XX시 조선족 기록

교 교회” 라고 쓰여 있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서 그 정류장 이름만 머릿속에 기억해두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때부터 나는 장보러 시내에 가야한다는 식으로 핑계를 대고 기억을 더듬어 마침내 교회를 찾아갔다. 하지만 평일이라 그런지 문이 닫혀 있었다. 굳게 닫혀 있는 철문을 보니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교회 앞까지 왔지만 아버지가 교회에도 북한 출신 간첩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겁이 나서 직접 들어가 물어보진 못하겠고 교회 앞에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일요일에만 연다고 하여 일요일에 시간을 내서 나오게 되었다. 그렇게 주일 예배를 출석하게 되었다. 나의 목적은 남조선에 가는 것이었지만 아무나 붙잡고 도와달라고 할 수 없어 몇 달을 예배만 드리며 상황을 살폈다. 3-4살 된 딸아이를 데리고 시내에 나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다. 버스에서 아이는 툭하면 울고 보채기 일쑤였고, 그렇게 한번 교회를 갔다 오면 온 몸이 쑤시고 사나흘은 통증에 시달렸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가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렸다. 내 모습을 본 어떤 성도님은 자모실이 아래층에 있으니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안내해주시기도 했지만, 나는 본당에 있고 싶었다. 그곳에 있어야 나를 도와 줄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는 아이 탓에 어쩔 수 없이 아래층으로 내려가야만 했는데, 그곳에서도 딸아이는 자꾸 울고 보채어 나를 난처하게 만들었다. 그럴 때에, 자기 아들도 그렇다며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언니가 한명 나타났다. 그 언니는 나를 극심히 챙겨주었는데 교회에 편히 갈 수 있게 차로 직



접 우리 집 근처까지 데리러 와주기도 했다. 언니는 나에게 신앙생활도 알려주었다. 하나님에 대한 좋은 이야기도 해주고, 기도도 가르쳐주고, 성경도 가르쳐주려고 했다. 하지만 정작 내가 한국에 가는 것은 반대했다. 비록 원치 않는 일이었지만 가족을 꾸렸으니, 그리고 지금 남편이 특별히 못되고 악하게 대하는 것도 아니니 내가 한국에 가면 혼자 남게 될 남편과 가족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였다.

나의 한국행을 지지해주지 않는 언니가 못내 섭섭했지만, 그래도 나는 언니 덕분에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고는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의문이 풀렸다. 나는 어려서부터 산이 왜 산이 되었는지 자연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궁금하였지만 답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듣고는 그분의 존재를 받아드리게 되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기도를 배우고 나서 나는 계속 하나님께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지 하소연 하며 한국에 가고 싶다고 애원을 했다. 그 후로도 언니에게 계속 한국에 갈 수 있게 도와달라

고 했지만 언니는 도와주지 않았다. 담임목사님께까지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목사님은 이미 이전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다가 감옥에 가서 매를 맞고 나왔다고 했다. 이 교회에서는 더 이상은 도움을 받을 형편이 되지 않기도 했고, 또 나로 인해 교회도 곤란해질 수 있다는 눈치였다.

나는 그 교회를 떠나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먼저는 한인교회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정확한 교회 위치를 몰라 아이를 안고 업고 기차역을 돌면서 지하 식당에서 눈에 보이는 교회 명함들을 다 회수했다. 교회를 찾아다니느라 진이 다 빠질 지경이었다. 혼자서도 교회를 찾아가기도 힘든데 아이까지 데리고 모르는 곳을 찾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렇게 혼자 헤매던 어느 날, 역에서 한국말을 하는 두 남자 분을 만나게 되었다. 한 명은 나이가 있어보였고 다른 한 명은 조금 젊었다. 나는 한국인인척 하며 그들에게 다가갔다. 여권을 잃어버려서 도움을 요청한다고 다가갔지만 그들은 내 말투를 듣자마자 내가 북한 사람인 걸 눈치 챘다. 한인교회를 찾아가는데 어떻게 가야하는지 물어봤더니 나이 많은 남자가 젊은 남자에게 나를 교회까지 데려다 주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게 명함을 한 장 주었다. 그 남자는 어떤 회사의 사장이고 젊은 남자는 경리라고 했다.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명함을 잘 간직한 채 한인교회를 따라 갔다. 하지만 그 한인교회에서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고 했다.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았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한 나는 모든 힘이 다 빠져버렸다. 그냥 여기서 살다가 묻히게 되는가 보다 생각했다.

그런 가운데 우연히 남편이 일하는 농장에서 특

이한 가족들이 내 눈에 들어왔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북한 신의주 쪽에서 사온 가족이라고 했다. 북한 출신 가족들은 뻘뻘 말라서 다른 지역 가족들과 눈에 띄게 차이가 났다. 이 가족들을 싸게 사와서 잘 먹인 다음 도축을 한다고 했다. 북한에서부터 가족을 사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나는 깜짝 놀랐다. 그리고 가족을 유통하는 이들을 통해 가족들과 연락하거나 적어도 소식을 알아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곧바로 나는 사장(라오반)인 남편의 사촌을 찾아가 북한의 가족들의 소식을 알아보줄 수 없는지 부탁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나에게 큰 화로 돌아오고야 말았다. 그 사장은 맨 입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면서 나에게 부적절한 요구를 강요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북에 남아있는 가족을 미끼로 나에게 심하게 치근덕대며 함부로 대하였다. 그러면서 정작 북한에 연락을 취하거나 소식을 알아보고자 하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가 남편의 친척으로서 해서는 안 될 언행을 함부로, 노골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나를 보호해주지 못했다. 남편의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인륜을 저버리고 악한 짓을 자행하는 짐승 같은 인간에 더해 자기 아내가 고통받고 있는데도 손 놓고 있는 남편까지... 이곳에서의 생활은 지옥과 다름이 없었다.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었다.

당시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을 키워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더욱 심적으로 괴로웠다.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죄에 민감하게 하고 회개케 하는 힘이 있으니 내가 처한 상황이 영적으로도 더욱 아프게 다가왔다. 그렇지만 철저한 악자로서 막다른 상황에 놓여있었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눈물로 기도하는 것뿐이었다. 하루라도 빨리 남한으로 탈출하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 121:1-2)

그렇게 눈물로 지새우던 어느 날, 주님께서는 나에게 전에 명함을 주었던 한국인을 떠올리게 하셨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명함의 연락처로 연락을 취했다. 다행히 전화가 연결이 되었고, 나는 무턱대고 그 분에게 애원했다. 한국에 꼭 가야만 한다고, 도와주시라고 말이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내 사정을 들은 그분은 몇 달 뒤 정말로 다시 연락을 주셔서 한 조선족 여성분의 연락처를 주셨다. 그분은 자기 사업을 하시면서 탈북자들을 중국에서 한국까지 데려다 주는 루트를 알고 있다고 하셨다. 불가능했던 한국행의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드디어 한국행의 가능성이 보이자 나는 북한에 있는 부모님 생각이 간절했다. 그 조선족 여성분에게 북에 남은 부모님도 구출해서 데리고 가면 안되겠느냐고 사정했다. 하지만 자신은 북한에서 데리고 나오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하며 대신 북한의 소식은 알아봐줄 수 있다고 했다. 마음을 줄이며 가족의 소식을 기다리기를 수 일째... 그 조선족 브로커는 내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더니 부모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교화소에 들어가셨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다. 말 그대로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었다. 평생 이렇게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나는 그날 밤을 꼬박 눈물로 지새웠다. 끝까지 나를 아껴주시고 떠나는 딸을 바라보시며 걱정해주시던 모습이 엇그제 같은데 이런 변을 당하시다니...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내가 먼저 가서 부모님을 모시고 나왔어야 했는데 죄송함과 안타까움을 달랠 길이 없었다. 그렇게 울고 나니 내 마음이 냉정해 지는 것을 느꼈다. 딸이 남조선에서는 잘 갔는지, 그 곳에서는 잘 살고 있을지 걱정하며 맘 졸이셨을 부모님을 생각하니 마음을 독하게 먹고 더 이상 지체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지금도 수많은 탈북 여성들이 이국땅에서 변변찮은 신분도 없이 지내고 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잘 적응하며 지내는 듯 보이지만, 아무리 그곳에서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신고하면 바로 붙잡혀 북송 대상이 되는 불안한 신분이다 보니 약한 이들의 해코지감이 되기 쉽다. 또한 자신의 안위 뿐 아니라 가족을 위한 책임을 짊어지고 탈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형편도 어려운 상황에서 북에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책임감에 짓눌리는 가운데 더욱더 남한 행이 간절해지곤 한

다. 그 불안함과 괴로움, 그리고 책임감 속에 탈북 여성들은 인간관계에서 깊은 불신과 쓴뿌리를 가지게 된다. 나도 그러한 쓴뿌리 속에서 고통 받았다. 그리고 치유되지 못한 쓴뿌리는 남한에 들어온 이후에도 탈북 여성들을 괴롭히며 인간관계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삶을 망가뜨린다.

분단의 비극 속에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희생되는 이들의 아픔과 상처를 누가 치유할 수 있겠는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한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상처 입은 자, 죄인들, 바로 나와 같은 탈북 여성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신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막 2:17)

그렇지만 이들이 가진 상처는 주님을 만나는 여정에 큰 장애물이 되기에, 믿음의 공동체로부터의 지지와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회에서도 남한 출신 성도들과 탈북 여성들이 서로를 대하는 일에 어려움을 느끼고, 또 서로에 대한 오해와 불만이 쌓이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아마도 서로에 대한 이해와 이를 위한 배경 지식 등이 부족한 탓일 것이다. 남한의 교회와 성도님들께 비록 모난 부분이 많은 탈북 여성들이지만, 그들의 말 못할 어려움과 상처를 이해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듬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탈북 여성들이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 자신들의 아픔을 온전히 치유받고 새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계속)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제 목: 우주에서 본 한반도
저 자: 임철희
출판사: 21세기북스
발행일: 24년 1월 15일
가 격: 18,000원

북한을 연구하기란 참으로 어렵다. 정보의 흐름을 꽂꽂 차단하고 있는 북한이기에 단순 실태 파악도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되곤 한다. 그나마 탈북민들을 통해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되었지만 코로나19 대유행 등을 거치며 탈북자의 수가 급감하였고, 자연스럽게 북한에 대한 최신의 정보는 확인하기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즘 북한 연구에서 자주 보이는 연구 방법이 바로 위성사진 활용이다. 우주 공간에서 지상을 관찰할 수 있는 위성은 국경을 걸어 잠그고 있는 북한 지역을 관찰할 수 있는 귀한 눈이 되어주고 있다. 그렇지만 위성이라는 도구가 우리에게 워낙 낯설다보니 위성에서는 어떤 사진이 촬영되고 어떻게 그 사진을 분석해서 활용하는지 궁금하기도 하다. 오늘 소개할 책, “우주에서 본 한반도”는 인공위성을 통해 북한을 바라보며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 알 수 있는 북한의 모습과 동향을 이야기해주는 책이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위성을 활용해서 알 수 있는 북한의 모습은 다양하다. 북한의 인구 분포는 어떠한지, 전력 공급은 어떠한지, 여러 광산의 가동 실태는 어떠한지, 민둥산이라고 하는 북한의 실제 삼림 상태는 어떠한지 등등 다양한 정보를

위성을 통해 설명한다. 북한 하면 떠올릴 북한의 핵 시설 및 핵실험 장소, 그리고 북한이 그 존재를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정치범 수용소들에 대해 위성으로 관찰한 내용도 소개하고 있다. 단순히 보이는 위성사진만으로 어떻게 이런 다양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을까 놀라웠다. 위성사진과 그래프가 잔뜩 그려진 논문이나 연구서적은 사실 읽기에 부담스러운 점이 있는데, 이 책은 어려울 수 있는 내용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으며, 또 위성을 통한 연구의 기초적인 부분들을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어 이 책 뿐 아니라 다른 위성 활용 연구 자료를 읽을 때도 도움이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코로나19 이후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위성은 무어라 설명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북한의 최근 상황은 항상 궁금한 부분이지만, 아무래도 관련 자료가 희귀하고 대부분의 북한 연구가 어느 정도 탈북이 가능했던 19년도 즈음에 멈춰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시기 북한의 모습에 대해서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과 추정을 제시하고 있다. 위성이 보여주는 요즘 북한의 동향은 흥미로웠다. 수출길이 막혔지만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광산들의 활동, 핵실험 준비까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우라늄 채굴이나 관련 활동은 여전히 이루어지는 모습, 그 외에도 북한의 다양한 ‘요즘’ 이야기가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설명되는 것을 보며 위성이 북한 연구에 있어서 유용한 도구임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이 책은 위성이라는 도구를 통해 살펴본 북한을 이야기식의 쉬운 문체로 소개하고 있다. 북한과 위성을 통한 연구에 대한 교양서적으로서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요즘 북한이 궁금하다면, 특히 최근 자주 활용되는 위성을 통한 북한 연구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우주에서 본 한반도”로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다. ☺

지난해 강제북송된 탈북자 200여명 중 기독교인 정치범수용소 수감돼...



지난해 중국에서 강제북송된 탈북민 200여 명 중 중국에서 기독교를 접하거나 한국행을 기도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예외 없이 정치범수용소행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북한전문매체 데일리NK가 보도했다.

데일리NK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해 10월 강제북송된 탈북민 중 10여 명이 신의주와 온성의 보위부 집결소에서 약 3개월간 탈북 경위와 중국에서의 행적 등에 대한 집중 조사를 받은 뒤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고 전했다. 중국에서 기독교 단체와 접촉하거나, 한국이나 미국 등 제3국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북한 관련 정보를 전달하거나, 한국행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다.

특히 성경을 접하거나 기독교 교리에 대해 들

었다는 기록이 있는 사람의 경우 가차 없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는 전언이다. 북한 보위부는 중국 공안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자료를 토대로 강제북송된 탈북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데, 자료에 종교와 관련된 행적이 적시돼 있는 탈북민의 경우 어떤 진술이나 해명을 하더라도 정치범수용소행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이 탈북민들은 국가보위성 또는 사회안전성 산하 정치범수용소에 각각 수감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가보위성 산하 정치범수용소에 구금되면 사실상 석방될 가능성이 0%에 가깝지만, 사회안전성 산하의 정치범수용소는 희박하지만 구금이 해제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기독교인이나 한국인을 접한 적이 없고 한국행을 기도하지 않은 것은 물론 중국에서 자진 귀국하기 위해 스스로 파출소에 찾아갔거나 중국에서 비교적 경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수감된 경우 등은 감형되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북한 당국이 코로나로 인해 불가피하게 국경을 봉쇄했기 때문에 선고한 형량에서 국경봉쇄 기간에 해당하는 3년을 제해주었다는 것이 소식통의 설명이다. (참고: 데일리NK, 4월 22일)

김정은 초상화, 김일성·김정일과 나란히 걸렸다... 우상화 박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상화가 김일성·김정일 등 선대 지도자들의 초상화와 나란히 걸린 것이 북한 매체에서 처음으로 포착됐다.

조선중앙통신은 5월 21일 김 위원장이 평양 금수산지구 노동당 중앙간부학교 준공식에 참석했다며 다수의 사진을 보도했다. 사진에는 교내 혁명사적관 외벽에 김정은 위원장의 초상화가 김일성 주석·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와 나란히 배치됐다. 김정은 위원장의 초상화만 별도로 포착된 적은 많았지만, 김일성·김정일 초상화와 같은 반열로 내걸린 게 파악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학교 교실 칠판 위에도 김씨 일가 3명의 초상화가 줄줄이 배치됐다.

이 사진들은 대외용인 중앙통신, 북한 모든 주



민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동시 공개됐다. 중앙통신은 지난 16일에도 김정은의 중앙간부학교 완공 현장 방문을 보도하며 다수의 사진을 송고했는데, 이때는 김일성·김정일 초상화만 포착됐을 뿐 김정은의 초상화는 찾아볼 수 없었다.

전문가들은 2012년 집권한 김정은이 체제 출범 10년을 넘기면서 선대 최고지도자들과 같은 반열에 올랐음을 알리고자 '초상화 정치'로 우상화에 힘을 쏟고 있다고 분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씨 3대 사진이 나란히 게재된 것은 이례적"이라며 "최근 '김정은 혁명사상' 등 사상지도자로서의 위상 과시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참고: 연합뉴스, 5월 22일)


美당국자 “러, 北·이란에 무기프로그램 기술 지원하는 듯”

북한 및 이란 등 적대국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을 차단하는 것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차단에 핵심이라는 미 국방 당국자의 발언이 나왔다.

존 힐 국방부 우주 및 미사일방어 담당 부차관보는 5월 21일(현지시간) 상원 세출소위에 출석해 이란과 러시아간 군사 협력의 함의를 묻는 질문에 “이는 이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며 “이는 북한도 연계된 일”이라고 말했다.

힐 부차관보는 “알다시피 북한과 이란은 러시아에 미사일을 제공하고 있고, 러시아는 이들 국가에 무기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우리 및 다른 나라에 대한 위

협”이라고 지적했다. 힐 부차관보는 “우리는 현재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와 북한 및 이란의 관계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러간 군사적 밀착에 여러 차례 공개 경고를 보내고 있다. 미국은 한국, 일본 등과 함께 북한과 러시아간의 무기 및 정제유 거래를 겨냥한 신규 제재를 이달 중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달 초 온라인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지난 3월 한 달 동안에만 북한에 16만 5천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참고: 연합뉴스, 5월 21일) 

북한 대외경제성 대표단 이란 방문

윤정호 대외경제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정부 대표단이 4월 23일 평양에서 출발해 이란을 방문했다. 북한 대표단은 5월 2일 귀국까지 열흘 가까이 이란에 체류했다. 북한 고위급 인사의 이란 방문은 2019년 박철민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이후 5년 만이다.

최근 대면 외교를 재개한 북한이 반미 진영의 전통적 우방 가운데 하나인 이란과 협력 강화 행보에 나섰다 해석이 나온다. 탄도미사일과 핵기술 분야에서 협력 의혹을 받아온 양측이 군사 협력 등을 논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었다. 이에 대해 나세르 칸아니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4월 29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편향되고 근거없는 추측”이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북한 대표단은 4월 27일 이란 테헤란에서 개막한 제6회 수출박람회에 참석하고 정부와 민간 부문에서 양국 무역 발전과 관련한 회담을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북한은 반미 진영의 전통적 우방 가운데 하나인 이란을 옹호하는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 조선 중앙통신은 4월 30일 ‘적반하장의 극치 - 미국의 대이란 제재 소동’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의 최근 대이란 제재는 “이란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난폭하고 불법 무도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참고: 연합뉴스, 5월 3일) 

북 주민 “하루 옥수수죽 두 끼”... 보릿고개 공포감 확산




북한이 본격적으로 보릿고개 시기에 접어든 가운데 취약계층에서는 꽃제비가 되거나 사망하는 사람도 발생하면서 북한 주민 사이에 보릿고개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아시아프레스의 조사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강도의 소식통은 지난 4월 초순 약 20~40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인민반에서 3~7세대 정도가 하루 두 끼 이하로 생활하고 있으며, 그 두 끼 식사조차도 옥수수죽이나 옥수수밥에 무, 감자, 시래기 등을 섞은 것으로 겨우 버티는 형편이라고 전했다. 함경북도의 소식통 역시 “인민반의 약 40% 정도가 어렵게 살고 있다”며 “당국의 통제로 장마당이 위축되면서, 과거 장사를 해 비교적 여유 있게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은 하루 벌

이로 겨우 버티고 있다”고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지난해 쌀과 옥수수 등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은 전년보다 소폭 개선되었으나, 북한 당국이 국가 보유 식량을 먼저 확보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돌아가는 곡물량에 큰 차이가 없다고 진단했다. 또한 북한 당국이 시장으로 유출되는 곡물 통제를 강화하면서 시장 기능은 악화하는 반면, 쌀 가격은 1월 초 1kg당 5000원 선에서 7000원대로 상승해 일반 주민의 생활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시 주민은 시장 통제에 따라 장사를 할 수 없어 현금 수입이 급감했고, 농촌 주민은 부족한 식량에 현금 수입의 기회조차 없는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북한 당국도 나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주민들의 우려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전했다. 중앙 정부로부터 “절량 세대를 돌봐주라”는 지시가 내려와 각 인민반에서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쌀과 옥수수 1~2kg씩을 모으는가 하면, 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에서는 소량의 옥수수를 지원하고 있지만, 절량 세대가 많아지면서 지원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참고: 자유아시아방송, 5월 2일) 

김정은 잇달은 국방공업기업소 현지지도... 군비 증강 및 무기 수출 의도 주목




〈신형 240mm 방사포탄 시험사격을 참관한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방공업기업소를 잇달아 현지지도하면서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5월 11~12일 제2경제위원회 산하 중요 국방공업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면서 신형 240mm 방사포를 싣는 차량을 직접 시운전하고, 무기체계 생산 확대와 포병 전투력 강화를 지시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4월 25일 국방공업기업소에서 생산한 240mm 방사포탄의 검수사격을 참관했으며, 5월 10일에도 현장지도를 통해 240mm 방사포 무기체계를 파악하고 유도 기능을 갖춘 방사포탄의 시험사격을 지켜봤다.

방사포는 북한의 '서울 불바다' 위협이 제기될 때 거론되는 무기체계로 기존 포탄의 유효 사거리는 40km, 최대 사거리는 60km로 알려졌다. 북한

이 기존 포탄에 위치정보시스템(GPS) 조종날개를 장착해 유도화하는 데 성공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거리와 정밀도가 개선됐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해당 신형 방사포를 올해부터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신형 방사포와 관련하여 러시아로의 무기 공급이 주목되고 있다. 국정원은 5월 12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쓴 무기 가운데 1970년대 북한산 122mm 다연장로켓포(방사포)가 포함된 정황이 있어 정밀하게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러시아에 노후 재고 방사포탄을 넘기고 대량 생산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개량형 개발에도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122mm 방사포탄 등을 러시아에 수출하고 있는 북한이 240mm 방사포로 수출 품목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김정은은 이 외에도 5월 17일 '자치유도항법체계'를 도입한 전술 탄도미사일 시험 사격을 참관했으며, 같은날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차량을 생산하는 국방공업기업소도 방문하기도 했다. (참고: 연합뉴스, 뉴스 보도 종합) 

1 북한의 군사행보 중단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은 24년에도 여전히 핵 군비 증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핵 탄두의 기하급수적 생산과 여러 미사일 개발 뿐 아니라 실제로 핵무기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지휘통제시스템과 이를 돕는 정찰위성 발사 등 본격적으로 핵무기를 운용하는 체계를 갖추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군비 증강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가운데 군사 부분의 과도한 투자는 민생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과 무기에 자신의 안녕을 의존할 수 없음을 깨닫고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져만 가는 한반도에서 주님의 돌보심 아래 살롬의 평화가 진전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러우전쟁 종식과 중동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은 전쟁 물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에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면서 그 대가로 국제적 압력과 제재를 회피하고 식량과 기술 지원 등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지역의 분쟁에서도 하마스가 북한제 무기를 다수 사용하는 모습이 관측되는 등 북한은 분쟁상황을 활용하여 세계 곳곳에 무기를 공급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재원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다시금 핵 군비 증강에 투입되어 한반도의 평화를 더욱 위협하고 있습니다. 러우전쟁과 중동 분쟁 등이 종식되고 평화가 진전되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북한이 의지하는 소위 '신냉전' 구도가 악화되고 북한의 국정 방향이 변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3 강제 복송된 신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해 중국에서 복송된 탈북자들 중에 성경을 접하거나 기독교 교리에 대해 들었다는 기록이 있는 사람의 경우 가차 없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고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우려했던 바와 같이 신앙을 가진 탈북자들이 정치범으로 간주되어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매체는 또한 소규모 복송이 여전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복송된 신자들과 강제복송 중단을 위한 기도가 특별히 요청됩니다. 탈북자 강제 송환이 중단되고 붙잡혀 있는 탈북자들에게 살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신앙을 가진 탈북자들, 특별히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 이들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하루 속히 중단되도록 기도합니다.

4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탈북민 출신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씨, 그리고 조선족 사역자가 억류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억류된지 10년이 지나고 있지만, 이들의 구명을 위한 교계의 각급 단체의 성명서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한국교회가 함께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 최진영씨가 언론을 통해 석방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이들 갇힌 선교사들을 잊지 않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며 갇혀있는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하심을 얻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들이 하루빨리 자유함을 얻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5 북한선교현장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러시아에서 탈북민 사역을 하던 백 모 선교사님이 러시아 정보기관에 의해 체포되어 간첩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백 선교사는 2월 말 모스크바로 이송돼 수감 중인데, 러시아 법원은

북한 기도 제목

6월 15일까지 간첩 혐의를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10~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북러 관계 밀착으로 해외 북한 노동자와 탈북자 사역의 위축 우려가 높아지던 중에 발생한 이번 사건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는 해외 북한 선교 현장에 대한 우리의 기도가 절실함을 일깨워줍니다. 체포된 백 선교사님의 안전과 무사귀환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의 안전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6 북한의 다음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북한은 교육에서 출신성분보다도 경쟁과 실력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나오면 사회적으로 더 나은 직업과 지위를 가질 수 있다 보니 중학교 때부터 대학 입학에 유리한 제1중학교 진학을 위한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넉넉지 못하거나 시골 지역의 학생들은 빈부에 따른, 그리고 지역에 따른 교육 환경의 불평등이 심화되어 북한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교육 환경이 개선되어 학생들의 부담이 경감되고 물질로 인해 상처받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교육 영역에서 출신 성분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주민 의식 수준이 향상되는 가운데 북한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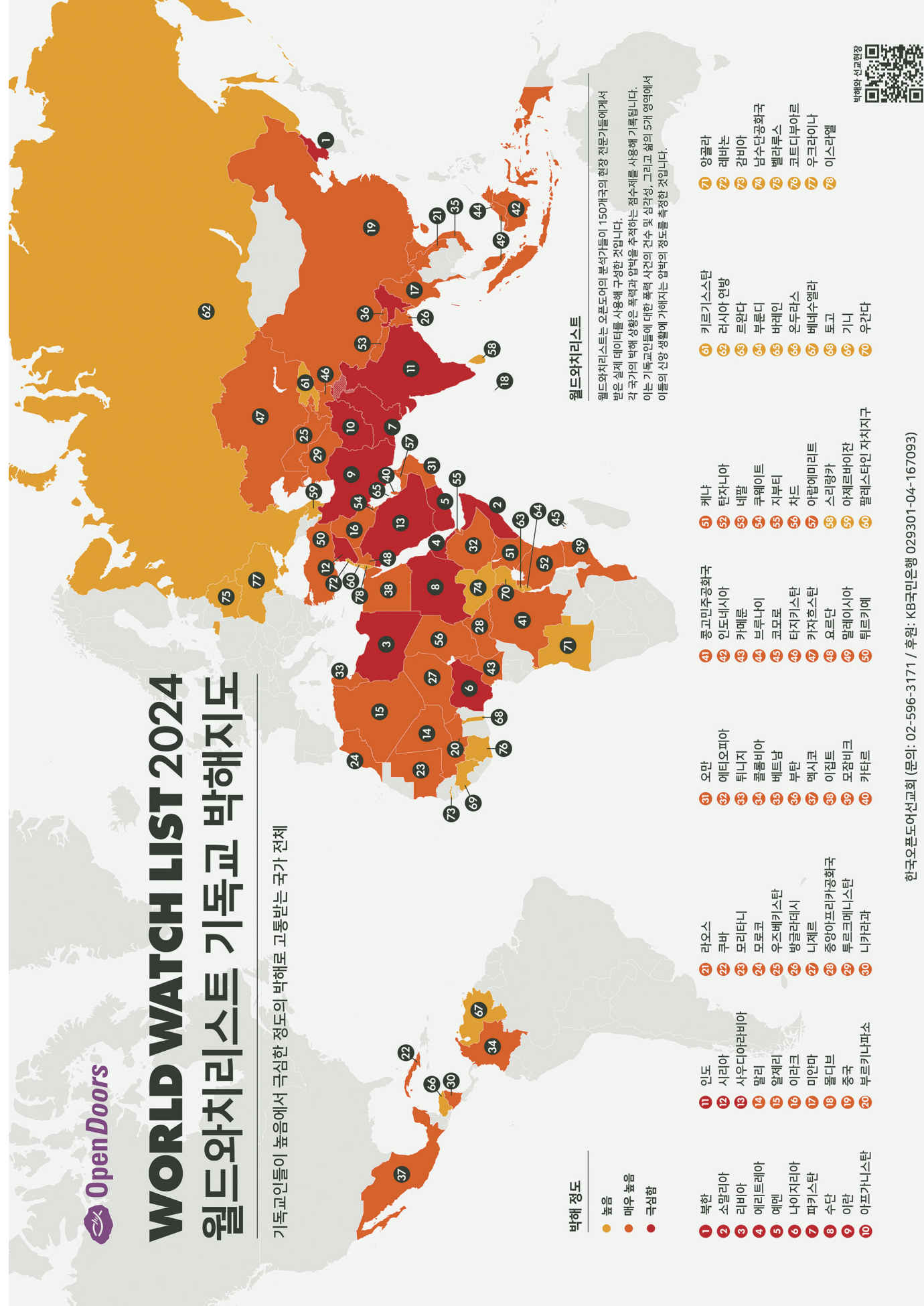
7 북한 주민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따뜻한 봄날을 누리는 동안 식량난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은 식량부족이 고조되는 어렵고 힘든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 추수가 예년에 비해 조금 나아졌고 러시아를 통해 식량을 공급받는 등 개선의 움직임이 있지만 올해도 식량난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절대적인 생산량의 문제보다도 시장을 통한 식량 거래 금지 및 양곡판매소 운영에 따른 유통 상의 문제가 큼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온 식량도 군대와 건설사업장 등에 우선적으로 공급되는 가운데 정작 주민들의 식량난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북한 주민들이 춘궁기의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식량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어려움에 처한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본 선교회를 비롯한 여러 선교단체와 NGO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8 북녘을 향한 라디오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극동방송, 북방선교방송, 생명의 강 방송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끝났지만 여전히 인적 왕래는 제한적인 가운데 라디오 방송 사역은 막힌 담을 넘어 북녘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양질의 방송 프로그램들이 제작, 송출될 수 있도록 방송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상 악화나 방해전파 등으로 인한 청취 장애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기도합니다. 특히 북녘의 주민과 성도들이 강화된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단속 열풍을 잘 피해서 안전하게 방송을 들으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24년 5월 31일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에서
선교를 위한 자료개발과 한국교회에 기도정보 제공을 위해
계간 “북한지역연구”를 2023년 여름부터 발간하고 있습니다.

“북한지역연구”의 온라인 버전은
홈페이지(www.opendoors.or.kr)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지역연구”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요청하기”메뉴를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